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의 제한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부는 1987년 의원입법으로 「청소년육성법」을 제정하여 주로 문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후 대책 위주로 시행하여온 이전의 청소년보호정책에서 적극적이고 예방 중심의 청소년정책으로 그 내용을 바꾸었다. 그 후 1988년 체육부에 청소년국이 설치되고, 1990년 체육청소년부의 신설에 이어 1993년 마침내 전국 청소년정책을 총괄하는 청소년정책실과 전국 시·도에 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3~1997)의 수립, 「청소년기본법」의 시행으로 현행 청소년정책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1997년에는 「청소년보호법」을 시행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지금은 제3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2003~2007)을 마련 중에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정부는 10여 년의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 뒤에는 지나친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학교중심 교육과 학교 밖의 청소년육성의 연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청소년보호정책과 청소년육성정책의 이분화(二分化), 청소년수련활동 위주의 「청소년기본법」 내용 구성 등의 주요한 문제가 아직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또한 그간의 평가에서 간과될 수 없는 사실이다.

위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우리의 청소년정책사를 보면서 한 가지 두드러진 사실은 지금까지 이 과정을 무엇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는 것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올해 제3차 청소년육성5

개년계획(2003~2007)을 수립한다.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는 “청소년육성”이란 개념을 청소년정책의 핵심 개념으로 말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의 의미와 구별되며, 학교 밖의 생활권이나 자연권에서의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도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재정과 구분되어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육성기금’의 운영과 함께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별도로 집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교육재정에 비하여 청소년육성의 재정이 형편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나, 그나마 이러한 부족한 청소년육성 재정이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미 해결된 청소년육성의 문제점들이 아니라 정부주도의 청소년육성이 총체적인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의 근원은 청소년육성이라는 내용과 그의 실천이 본질적으로 정부주도 이루어져서는 그의 한계를 나타낼 수뿐이 없다는 데 있다. 말하자면, 이러한 한계는 청소년육성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요, 이제는 이를 찾아 주어야만 청소년육성 분야가 더욱 다양하고 활발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육성의 이념은 원래 현대사회, 특히 우리의 입시위주 교육의 병폐로 인해 지(知)·덕(德)·체(體)가 조화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는 주로 지식을 습득하고, 학교 밖의 생활권이나 자연권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하여 심신(心身)을 고루 발달시켜서 전인적(全人的)인 인격체로 형성하도록 하는데 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자발적·자율적 참여가 전제로 되어 있다. 즉, 정부 주도의 공교육 제도하의 교육과는 달리 청소년육성은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의사와 욕구에 따라 참여하게 되어 있으므로 태생적으로 정부가 간섭하거나 이끌어 가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

2002)에서 청소년인권 및 청소년 자율·참여 신장을 주요 패러다임으로 공시함으로서 함께 인식한 바 있다. 이를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청소년육성은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부문에서 주도할 때에 그의 정체성을 찾게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Jeremy Rifkin은 그의 『*The End of Work*』 (1994)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서 기술혁신은 수많은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며, 장차 미래에는 대량실업사회의 출현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면서 궁극적인 대안으로 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제3부문’, 즉 시장부문도 국가의 공공부문도 아닌 비영리 부문으로서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NGO 등의 비영리 공동체 활동영역의 활성화가 노동의 종말 이후의 세계를 파국에서 구할 수 있는 길임을 말하고 있다. 미래학자인 리프킨 외에도 새로운 우익사상으로 일컬어지는 신자유주의를 주창한 Anthony Giddens도 그의 저서 『*The Third Way*』 (2000)에서 시민사회 혁신의 일환으로 제3부문의 도입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부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제정을 통해 비로소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여 시민사회와 제3부문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넓게 보면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리프킨의 제안에 따르면 정부가 제3부문을 지원을 하게 되지만 이를 위한 자금은 기업에 대한 보조금 중단, 방위비 축소, 고가의 사치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등을 통해 마련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결국, 자본주의의 무한경쟁으로 편중된 부(富)로 야기될 수 있는 대량실업과 그로 인한 대재앙을 공동체적 가치에 근거해 합리적인 사회적 분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미래사회의 진단에서 중요한 의미로 부각되고 있는 ‘제3부문’이 청소년육성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은 청소년육성의 정체성을 바로 이 제3부문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

이다. 즉, 국가부문의 정부나 시장부문의 민간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보아 민간부문으로 말해질 수 있는 이 제3부분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때 청소년육성이 보다 자율적인 토대 위에서 활성화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청소년 수련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 및 투자확대방안 연구』(황창순 외; 1992)의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정부의 청소년육성의 지원은 한계가 있음이 밝혀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출연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하고, 또한 『청소년관련 산업 및 복지투자에 관한 연구』(최충욱·임성택·서정아; 1999)에서 조사 발표되었듯이 많은 민간기업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면서 이들을 위해서 지출하는 액수는 아주 미미한 것으로 이미 밝혀졌다. 따라서 이 연구보고서는 청소년육성의 이념과 정체성에 맞도록 반드시 민간부문에서 청소년육성에 더 많은 출연과 지원이 있어야 함을 비판적으로 역설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방향과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욱이 청소년육성 관련 활동 중에서 최근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많은 대중문화(이민희·맹영임·정문성; 1999)나 문화산업(이민희·이동연·김상우; 2001)과 관련된 활동에 있어서 민간부문, 특히 민간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된 법제도의 고찰과 정확한 실태 파악을 근거로 지원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다각도의 정책을 개발하는데 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내용

연구는 크게 민간부문의 청소년육성과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시대적 필요성과 의미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에서 민간부문의

청소년육성 관련 지원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면접조사 및 사례조사, 외국의 민간부문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관련현황, 청소년육성과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민간부문의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개발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먼저 청소년육성과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시대적 필요성과 의미에 관한 이론적 고찰에서는 민간부문에서의 공익활동과 청소년육성이 시대적으로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고 그의 의미가 어떠한가와 함께 청소년육성과 청소년 문화활동에 관한 정부 공공부문에서의 지원정책의 한계에 따른 민간부문으로의 전환에 관한 시대적 필요성과 의미가 이론적으로 고찰되었다. 예를 들면, 청소년육성 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은 민간부문에서의 공익활동 지원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선진국들에 있어서 이러한 공익활동 지원은 역사적 전통 속에서 정부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그리고 민간기업들의 시장부문에서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활발히 지원되고 있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관한 의미를 이론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정부가 위탁을 주거나 지원하는 많은 공익성 사회단체들을 위한 공공기금확보 정책, 민간기업의 각종 사회단체의 지원과 청소년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이론적인 고찰이 주로 문헌연구를 통하여 고찰되었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민간부문의 청소년육성 관련 지원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한 면접조사 및 사례조사에서는 청소년문화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기관 및 단체들의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과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부문에서의 현행 청소년관련 재단과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성격과 구조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 그리고 청소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청소년육성사업 및 청소년단체들에 대한 기부, 투자 등의 출연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이들에 대한 운영사례를 소개하고 이

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 대한 면접조사들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을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민간기업들 중에서 KT나 LG 등과 같은 대기업들에 대한 기업의 이윤구조를 관련자료를 상세히 분석하여 밝혀 냄으로서 이들의 청소년육성 지원을 위한 민간출연의 당위성과 의무를 공개적으로 강조하였다.

다음으로는 앞의 이론적 고찰과 국내의 민간부문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현황과 비교하여 외국의 민간부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공익활동에 관하여 상세히 다루었다. 앞에서 언급한 우리나라에서의 민간부문 공익활동의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시대적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고찰과 우리의 현황과 비교해서 선진국들은 어떻게 이러한 지원을 우리 보다 앞서서 실제로 행하고 있는가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국제재단과 미국을 비롯한 호주, 유럽의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민간부문이 그들의 공익활동을 정부와 어떠한 관계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육성과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최종적으로 청소년육성과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민간부문의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개발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거시적으로 한국의 제3부문에 관한 정책에 대한 후진성과 특히 민간기업들의 민간출연의 문화조성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의 결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토대로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에서 청소년육성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정책을 제안하고, 특히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대중문화나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과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문화활동에의 민간부문에서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된 법령 및 조세제도의 개선, 기업의 메세나 활동 촉진 등과 관련된 거시적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는 민간부문의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 학계 등이 참여하는 workshop 개최와 관련된 기업 및 재단, 단체 등에서 종사하는 관계자들에 관한 심층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문헌연구, 자료조사, 사례연구,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1) 문헌연구 및 자료조사

문헌연구와 자료조사에서는 주로 이론적 고찰이 주가 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정부 공공부문에서의 지원정책의 한계와 민간부문에서의 지원에 관한 시대적 필요성과 의미 고찰부분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되며 주로 해석학적인 이해를 통해 접근이 이루어진다. 또한 선진국들의 지원정책과 비교하여 이론적으로 고찰되는데 선진국들에 있어서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이 역사적 전통 속에서 정부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그리고 민간기업들의 시장부문에서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활발히 지원되고 있는 것을 문헌연구와 자료분석을 통하여 비교 고찰하였다.

2) 전문가 정책포럼 개최

전문가 정책포럼 개최에서는 연구보고서의 최종결과인 민간부문에서의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방안에 관한 정책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정부, 민간기업, 재단, 단체, 기관, 학계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민간부문의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있어서의 현황과 문제점을 토의하고 문제해결과 정책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

3) 면접조사

청소년문화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기관 및 단체들의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과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현행 청소년관련 재단과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성격과 구조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 그리고 청소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청소년육성사업 및 청소년단체들에 대한 기부, 투자 등의 출연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과 운영사례에 대하여 이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 대하여 면접조사를 통하여 연구되었다.

4) 전문가 자문회의

최종적으로 청소년육성과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민간부문의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모형 개발을 위하여 정부, 민간기업, 재단, 단체, 기관, 학계, 연구소 등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정책모형의 개발 전후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연구보고서 결과를 확정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민간부문, 특히 기업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는 최초로 시도되는 연구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의 실태와 외국의 지원사례에 대한 조사 연구, 그리고 거시적인 발전적 정책의 틀을 제시하는 연구가 될 수뿐이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청소년관련 민간 및 공공 산업체의 청소년 관련 문화산업에의 투자 및 청소년복지투자 확대, 청소년의 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청소년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금마련과 조세지원방안 등의 개선,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 가능한 민간부문에서의 기업, 재단, 단체들의 네트워크 형성 등의 세부적인 정책 개발은 후속연구로 미룬다.